



얇은 껍질·아삭한 식감 국산 포도 '코코볼', 시장 첫선

-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 경북 상주 등 약 2톤(t) 백화점 등서 판매 시작
- 껍질째 먹고 당도 높아 샤인머스켓 이을 대안 주목…시장 확대 도움 기대

얇은 껍질과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국산 포도 신품종 '코코볼'이 올해 처음 소비자를 만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코코볼'이 8월 14일부터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된다고 밝혔다.

'코코볼'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해 2023년 품종 출원하고, 이듬해 통상 실시*를 통해 보급한 껍질째 먹는 포도다. 코코아 빛을 띠는 얇은 껍질과 손으로 빤 듯한 자연스러운 열매 모양을 살려 이름을 붙였다.

* 개발 품종을 민간이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용하는 절차

껍질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얇아 껍질째 먹기 좋고, 한입 베어 물면 이가 박힐 듯 아삭한 식감의 과육이 돋보인다. 노지 비가림 재배 기준으로 익는 시기는 9월 중순께이며, 당도는 19.4브릭스(°Bx), 신맛(산 함량)은 0.32퍼센트(%)이다**.

** 샤인머스켓 당도 19.0브릭스, 산 함량 0.29%(동일 포장 기준)

8월 중순에 나오는 초기 물량은 3중 무가온 하우스(비닐하우스) 재배로 노지 비가림 재배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수확한 것이다. 포도알 사이 간격이 비교적 넓고 열매자루가 길어 송이가 지나치게 뻗뻗해지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그만큼 포도알을 숙는 데 드는 품이 줄고, 열매가 송이에서 떨어지는 현상도 적어 유통에 유리하다.

최근 샤인머스켓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내 포도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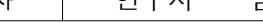
지고 있다. '코코볼'은 차별화된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으로, 농가 수익성 회복과 유통 시장 확대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코볼'은 올해 경북 상주 등 시범 농가를 중심으로 수확되며, 약 2톤가량 출하 예정이다. 이번 출하는 소비자와 유통업계 등 본격적인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재배 안정성을 확인해 보급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 뒤 품질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을 검토하고, 착색과 열매 터짐(열과) 등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현장 기술 지원도 이어간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기초기반과 김윤경 과장은 “‘코코볼’이 지닌 아삭한 식감은 소비자와 유통업자 모두가 선호하는 특성이다.”라며,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송이 모양은 알숙기에 드는 노동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포도 품종을 꾸준히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포도 ‘코코볼’ 주요 특성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기초기반과	책임자	과 장	김윤경 (063-238-6700)
		담당자	연구사	임동준 (063-238-6743)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 포도 '코코볼' 특성

□ 육성 내력

- 교배조합: 시마네스위트 × 플레임씨들레스
- 교배년도: 2015년
- 1·2차 선발년도: 2019년
- 지역적응시험: 2021~2023년
- 품종출원: 2023년
- 통상실시와 보급: 2024년
- 육성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품종 특성

- 비가림재배 시 9월 중순에 수확 가능(전북 완주 기준)
- 과피가 얇고 아삭하며 과립경(열매자루)이 길어 포도알이 밀착하지 않아 송이다듬기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생력형(노동력 절감) 품종
- 과피 이물감과 떫은맛이 적은 편, 탈립(알 떨어짐) 발생이 적어 유통 적성 우수
- 과실 특성

숙 기	종자유무	한 알 무게(g)	한 송이 무게(g)	당도 (°Bx)	산함량 (%)	향
9월 중순	유	10.6	415	19.4	0.32	무

□ 생육 특성과 재배 시 유의점

- 과다 착과 시 착색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송이 수는 가지당 1송이, 송이 무게를 500g 정도로 조절하여야 함
- 포도 성숙기 당도가 17.0° Bx 이상일 때 수분 변화가 심하면 열과(열매 터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색기부터 수확기까지 물관리 필요
- 내한성이 거봉보다 조금 더 약하고 등숙(가지 성숙)이 늦은 편으로 식재 지역에 따라 유목(어린 나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재 전에 고려하여야 함